투데이 칼럼

올림픽, 스포츠(Sports)의 탄생과 역사 · 사회적 의미

이 윤 희
피워스포츠과학연구소 대표

지금 일본 도쿄에서 2020올림픽이 열리고 있다. 중반을 넘어 종반으로 치닫고 있다.

올림픽은 스포츠 경기의 대제전으로 4년에 한 번씩 대륙을 옮겨가며 열린다.

역사적으로 스포츠는 현실에서 그때그때마다 혹독한 생존경쟁과 직결된 영영확장이나 도시국가형태인 자국을 지켜내기 위한 목숨을 건 투쟁의 산물이었다.

BC776년 고대 그리스의 도시국가인 올림피아에서 시작되어 우여곡절을 거쳐 서기 393년 제293회 대회를 마지막으로 종말을 고했다.

19세기 후반 역사학자였던 쿠베르탱 남작이 프로이센-프랑스 전쟁(1870-1871)에서 프랑스 패배원인을 병사들의 체력의 열세로 분석했고 체력향상을 꾀하게 되었다.

그 후 고대올림픽에서 영감을 얻어 1894년 IOC를 창설했으며, 2년 후 1896년 그리스에서 근대올림픽이 시작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고대올림픽은 최종적인 승리를 거둔 영웅들을 추모하는 장엄한 의식, 신(神)을 추앙하는 제전 형식으로 치러졌다. 남자만 경기에 참가할 수 있었으며, 여자는 참가뿐만 아니라 관람조차 금지되었다.

경기는 달리기를 시작으로 권투, 레슬링, 원반던지기, 창던지기 등 전반적으로 전쟁, 전투에 필요한 무기, 도구, 기능들을 규칙으로 만들었다. 참혹한 전쟁을 지양하고 평화를 추구하자 의미에서 올림픽으로 승화되었으며 그 때는 모든 선수들이 무기를 소지하지 않는 것을 나타내고자 벌거벗은 채로 경기를 벌였다고 한다.

고대올림픽이 그리스에서는 외양으로는 평화를 추구했지만 내면에서는 전쟁의 잔인함, 상흔을 그대로 잠재하고 있기에 현실에서는 역설적으로 고통(agon)이라 했다.

지금도 이 단어는 아테네 희극과 영어의 agony(고통, 번민), agonize(몹시 괴로워하다, 고뇌하다)로 그 흔적을 유지하고 있다.

생존경쟁이나 전쟁에서 비롯된 스포츠경기는 근대에 이르러 보다 활력 있는 생활을 영위하고, 서로의 우정을 돈독히 하며 평화를 지향하는 제도적 장치로 변모하고 발전을 거듭하고 있다.

20세기 중, 후반에 이르러 동서냉전이 완화되고 올림픽 운동이 발전함에 따라 현대올림픽은 변화하는 세계정세와 사회환경에 적응해야 하는 과제를 떠안게 되었다.

그 변화에 부응하기 위해 얼음과 눈을 이용하는 경기종목을 다루는 동계올림픽이 1924년 프랑스 샤모니에 태동되었고, 청각장애인을 위한 데플림픽(Deaflympics), 지적발달 장애인의 운동능력과 사회적 적응력을 높이기 위해 1968년 미국 시카고에서 스페셜올림픽(special oylimpic)이 시작되었다.

이후 장애인이 참여하는 패럴림픽(paralympics)이 1948년 시작되어 1988년 서울올림픽 때부터는 하계올림픽이 끝난 후 바로 그 도시에서 열리게끔 제도화되었다.

더구나 급속도로 변화하는 경제, 정치, 기술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 쿠베르탱이 기대했던 순수한 아마추어 정신에서 벗어나 프로선수들의 참여도 확대하게 되었다.

문명, 정보, 기술의 발달에 따른 점차 대중 매체의 중요성과 규모가 커짐에 따라 어쩔 수 없이 올림픽의 상업화와 기업의 후원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게 되었다.

더구나 식민시대가 종말을 고하고 냉전이 끝나면서 독립국 숫자가 늘어났고 모든 국가가 참여할 정도로 규모가 커졌다.

이제는 각 대륙을 돌아가며 개최지를 선정하기에 개최지와 개최국을 전 세계에 널리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이기도 하다.

또한 전 세계 언론들이 앞 다투어 경기를 실시간으로 중계하기에 생소한 종목, 이름없는 선수가 개인적으로 세계적으로 명성을 얻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되기도 한다.

사설

남북 통신연락선 복원의 과제

정전협정 체결 68주년인 지난 6월 27일 남북 사이에 의미 있는 조치가 이뤄졌다. 남북 간 대화 채널이 복원됐기 때문이다. 남북 통신연락선은 지난해 북한의 일방적 차단으로 1년 넘게 끊어졌다.

지난해 6월 대북 전단 살포에 대한 대응에 반발하며 북한이 남북 간 통신연락선을 일방적으로 끊은 지 13개월여 만이다. 복원 소식은 남북한이 동시에 발표했다. 북한도 복원 소식을 동시에 발표한 것이다.

통화도 매일 정기적으로 하기로 했다. 한동안 단절됐던 남북 대화가 재개될 수 있을지 벌써부터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복원이 된 날 남북공동연락사무소 남측 연락 대표는 "잘 들리십니까? 여기는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서울사무실입니다. 한 1년여 만에 통화가 재개되어서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라고 반갑게 말을 건넸다.

그리고 오전, 오후 한 차례씩 서해 군 통신선과 판문점 그리고 남북연락사무소를 통해 통화가 이뤄졌다.

앞으로 매일 오전, 오후 정기 통화를 갖기로 했다. 남북 간 통신연락선의 복원은 남북관계 개선과 발전에 긍정적으로 작용하게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조선중앙통신은 남북 정상이 화해를 도모하는 큰 걸음을 내딛는 데 합의했다고 전한 뒤, 통신연락선 복원이 남북관계 개선과 발전에 긍정적 작용을 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남북 정상 간 핫라인은 아직 복원되지 않았다. 이 문제도 앞으로 협의 사안인 만큼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 정전협정 68주년이 되는 날에 남북 대화에 물꼬가 트인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다.

이제는 우리 측의 일방적 구애가 아닌 남북 간 소통의 계기가 돼야 할 때이다. 남북 간 소통이 다시는 중단되지 않고, 복원된 통신연락선을 통해 남북 간 다양한 현안을 논의하고 합의 사항들을 실천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란다.

김제시 백산면의 디지털 농업 현장

전북 김제시 백산면에서 자율주행 이앙기와 일반 이앙기가 모심기를 하면서 관심을 모은 적이 있다. 이날 현장에서는 이른바 '벼 디지털 농업 현장 연시회'가 열렸다.

자동화·지능화 기술의 들녘별 공동 활용을 통한 노동력 절감과 안정적 생산 가능성을 확인했다. 특히 자율주행 이앙(모내기), 자동 물꼬 시스템에 대해 설명을 듣고 시연을 지켜봤다.

드론 활용 씨뿌림(파종) 동영상과 전시된 기기도 둘러보았다. 직진 자율주행 이앙 기술은 기존 2명이 담당하던 모내기 작업을 1명이 할 수 있다. 농번기 모내기에 드는 노동력과 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기술이다.

직진 구간 이앙 후 편리하게 선회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 스마트 턴 기능이 추가됐다. 비숙련자도 쉽게 조작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GPS로 수집한 좌표 값을 따라 이앙기는 스스로 움직인다.

이앙기의 좌표 정보는 다른 데이터와 결합해 큰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 논에 설치된 수위 센서를 영상 인식 카메라로 촬영해 물꼬를 관리하는 장치도 있다. 물 높이가 얼마나 되는지 그 정보가 서버를 통해 스마트폰에 전달되면 멀리서도 물꼬를 여닫을 수 있다.

비가 와서 논에 나오기 힘들면 스마트 폰으로 집에서 열었다 닫았다 하면 된다.

시기별 물 관리 데이터와 연계하면 장비가 알아서 물꼬를 관리해주는 자동화도 가능하다. 차츰 디지털 농업 시대가 다가오고 있다.

농촌 고령화로 노동력은 갈수록 부족하고 이상 기후로 벼 수확량은 일정하지 않은 상황이다. 편리하고 안정적으로 벼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자동화·지능화된 디지털 농업 기술을 현장에 적용하고 확대해 나가야 할 때이다.

본격적인 디지털 농업 시대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연구자들과 농가들이 협력해서 추가로 하나씩 개선해 나가야 할 것이다.

사외기고는 본보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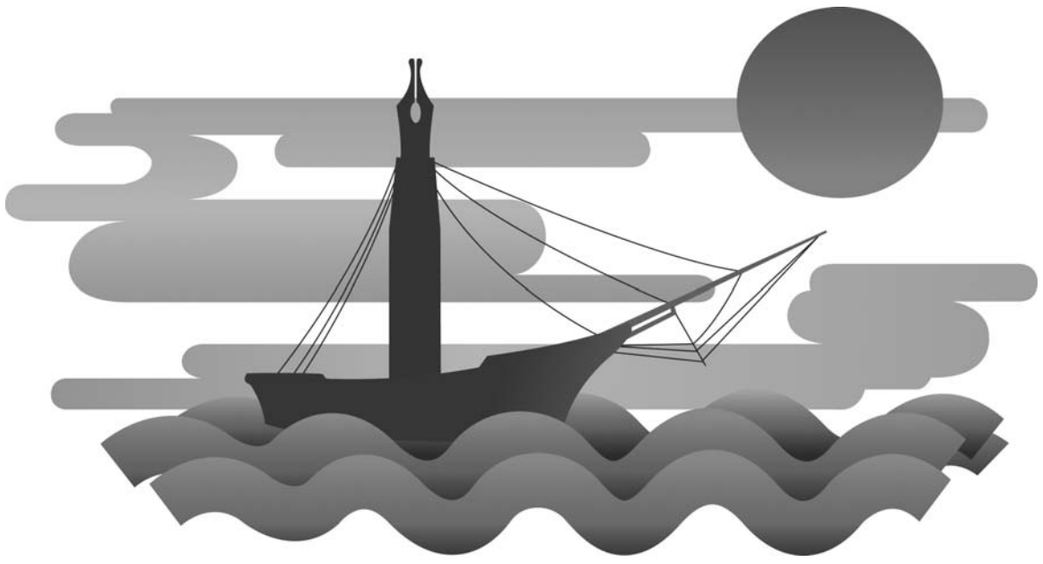
사진으로 보는 지구촌 소식

'해바라기 삼매경'

2일(현지시간) 캐나다 온타리오주 토론토의 칼레돈 마을에서 해바라기 축제가 열려 방문객들이 광활한 해바라기밭을 거닐고 있다. 지난달 24일 개막한 약 18만2천㎡(약 5만5천 평) 규모의 이 축제는 오는 8일까지 이어진다.

중국 장쑤성 '코로나19 확산 심상찮네'

2일(현지시간) 중국 장쑤성 성도 난징의 한 경기장에 마련된 코로나19 백신 접종소에서 주민들이 백신 접종 순서를 기다리고 있다. 중국에서 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하면서 봉쇄조치를 시행하는 지역이 늘어나고 있다. 지난달 21일 난징 루커우 국제공항에서 기내 청소 근로자들이 코로나19에 감염된 이후 확진 사례가 급증하면서 당국은 이날부터 모든 가게와 도매시장의 영업을 중단했다.



용기와 희망을 주는 인간을 위한 정론지

"더 좋은 신문, 더 사랑 받는 신문, 독자와 함께하는 신문"을 위해
전주매일의 전 직원들은
'전북 최고의 신문'을 제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정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중앙지를 답습하는 형태를 벗어나 보다 깊이 있게
내 고장 소식을 빠르고 정확히 독자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겠습니다.

당신의 가려움을 속 시원하게 긁어 드리기 위해
대안적 비판 기능을 강화하고 있으며
한 단계 더 성숙한 네트워크 구축과 함께
지역발전의 수레바퀴를 힘차게 굴리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인간중심 · 도덕중심 · 지역중심 전주매일